

2019. 09/18.

제28회 아산서평모임

강진아(지음), 『이주와 유통으로 본 근대 동아시아 경제사 - 동순태호 담걸쟁 이야기』
(서울: 아연출판사, 2018)

유 불란(서강대학교)

1. 세 개의 층위

- 1) 배 경(01-03장) : 동아시아 근대의 맥락 속에서, 華商(광동상인) 및 그들의 자본은 어떻게 형성되고, 또 조선에 유입되었는가?
- 2) 담걸쟁(04-09장) : 동순태호 및 담걸쟁은 조선에 어떻게 진출하고 입지를 다졌으며, 결국 쇠퇴에 이르게 되었는가?
- 3) 후일담(10-11장) : 철수 뒤, 담걸쟁의 후예를 비롯해 화교자본의 환류상황은 추후 어찌 전개되었는가?



· 매트릭스 및 네트워크 상 교차점으로서의 ‘담걸쟁’
· 광동상인들과 가로세로 교차하는, 중국 근대사상의 주요 인사들의 ‘네트워크’
· 근대 동아시아를 무대로 한 화교들의 ‘매트릭스’

2. ‘담걸쟁’ 층위와 관련된 세 가지 의문

- 1) 매트릭스 상의 전형성과 담걸쟁의 예외적 행태 ⇒ 조선에서의 화상(광동상인)에 대해 이해하는 데 담걸쟁이 갖는 의의?

“...동아시아의 광동 상인들은 각국 개항장에서 국제무역을 주업으로 하고, 비즈니스도 각국, 각 지역의 시장과 가격 상황을 보아...시세차익 위주로 장사하고 있었다. 그러므로 담청호나 양륜경이 무역항인 인천분호를 중시하고, 조선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는 것도 일반적인 광방의 사고방식이다. 그런데...인천분호의 형 담청호와 의견 대립이 잦았던 담걸쟁은...한성의 내수시장을 중시하는 모습을 꾸준히 보이고 있다. ...청일전쟁 이후 한일합방 전까지 대자본의 광방상점이 대부분 조선을 떠난 것에 비해, 담걸쟁은 조선 체류를 선택했을 뿐 아니라, 상해 동태호로부터 독립의 길을 걸어가게 된 데에는 담걸쟁이...안전 위주보다는 과감한 수익 추구형의 기업가였다는 점...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으리라 생각한다.” (본서, pp.185-6.)

2) 화교가 조선에서 받은 영향, 화교가 조선(상인)에 끼친 영향?

“한국에 있을 때 나는, 한국인들을 세계에서 제일 열등한 민족이 아닌가 의심했던 적이 있고, 그들의 상황을 가망이 없다고 여겼다. 그러나 이곳 프리모르스키에서 내 견해를 수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다. 이곳에서 한국인들은 변창하는 부농이 되었고, 근면하고 훌륭한 행실을 하고, 우수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로 변해갔다. 이들 역시 한국에 있었으면 마찬가지로 근면하지 않고, 절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토착 한국인들의 특징인 의심과 나태한 자부심, 자기보다 나은 이에 대한 노예근성이, 주체성과 독립심, 아시아인이raq기보다 영국인의 그것에 가까운 터프한 남자다움으로 변했다.” (이사벨라 버드,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3) “국민”?

“그 사람은 조금도 이상스러운 빛이 없이 혼연한 낮으로, 지금 일본과 지나 양국에 전쟁이 열리려 하나, 그것은 나라나라 사이에 관계를 접고자 함이오, 우리는 국민 된 터에 아무 까닭이 없은즉, 장사하는 사람은 마땅히 안심하여 영업을 할 일이오. [중략] 싸움은 싸움이오 장사는 장사인즉, 족히 놀라울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이 때를 쫓아 행할 바이라, 하며 자꾸 웃[더라.]” (『每日新報』 1915, 05/09)

3. 제언을 둘러싼 또 하나의 질문

“현재 우리는 지난 반세기의 노력으로 얻은 ‘강자’의 입장에서 사회적 약자인 화교의 인권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지만, 만약 화교가 반세기 이래로 한국의 정치와 경제를 장악하는 주류층이 되었다 한다면, 그래도 여전히 현재의 화교문제에 똑같은 잣대를 댈 수 있을까?” (본서, p.407)

// 강자와의 “전략적인 제휴”로서, 중국과의 “공존”의 모색 (본서, p.406)

⇒ 화교, 그리고 한국

⇒ ‘어중간함’과 관련된 시사점?